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자

A Year of a New Start

이의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Lee Eui-Koo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戊寅年) 한 해를 보내고 기묘년(己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벽찬 희망과 기대보다는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한 해를 맞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지척이건만 우리들 마음 한편에는 흑독하고 긴 겨울추위와 시련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선 그 누구도 작금의 IMF한파가 몇 년이나 갈지, 언제 끝날지 예단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설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연쇄도산과 실업률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충분한 저력이 있습니다. 6·25전란의 폐허를 딛고 세계 유수의 경제강국으로 올라서기까지 눈부신 성장의 시대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세운다는 각오와 결의로 굳게 뭉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산업 전분야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점차 회복될 기미는 보이나, 실업률의 상승과 민간부문의 투자감소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져 건축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WTO출범에 따른 건설시장 개방으로 설계서비스분야는 2천년부터 완전개방됨으로써 그야말로 건축사업계의 어려움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건축사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건축사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도 없이 규제완화를 내세워 건축사의 협회 가입의무 폐지 및 복수단체의 설립허용 등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닥칠 고통은 피해 갈 수도 없고 또 피해가서도 안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맞서 이를 이겨내는 것이 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끌며 머뭇거리거나 대충 넘어가려는 안이한 자세는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만큼 스스로의 능력과 체질을 강화해 똑같은 위기를 예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협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시스템을 동원하여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봉사하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건축경기의 침체로 회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원의 회비수입에 의존하던 관행

에서 벗어나 협회가 재정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영기반을 내실있고 견실한 조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회원 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봉사하는 협회"가 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로,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로써의 건축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축이 모든 문화생활의 바탕이며 인류 문화유산이 된다는 기본이념 아래 다양한 건축문화 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치루어 건축의 인식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국건축을 세계에 알리고자 올 9월중 서울에서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아시아지역 16개국에 참여하는 이 국제행사를 통해 외국의 저명한 건축가들과 함께 '아시아의 기술, 전통, 건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가간 건축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로 우리 건축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국건축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랍니다.

이 밖에도 당면현안인 협회 임의화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건축 및 건축사관련 각종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한 실질적인 회원권익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회원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최근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수단체 설립 허용과 임의가입 추진방침에 따라 지난해 말, 우리 건축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협회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회원들이 유사단체의 설립을 거론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로 이는 그동안 우리 협회가 이들 소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 못해 야기된 일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협회는 다양화, 다기능화 되어가는 사회 구조 속에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잣대로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소홀함이 없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호시탐탐 우리의 업역을 넘겨다보는 외부세력이 상존해있는 현실에서 내부개혁을 해 보지도 않고 각자의 이해대로 분열한다면 이는 곧 건축계의 "공멸(共滅)"을 자초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정부가 전문성있는 민간단체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시금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록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러한 현실에 동요되어 소아적 이해에 휩쓸려 분열을 일삼으며 전체를 와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건축인 모두는 소모적인 내부의 갈등을 억제하고 힘을 한 곳으로 모아 과거의 가식과 허위를 걷어내고 다양성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이를 목표로 우리 건축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행운의 여신은 반드시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대한 민족은 생사가 걸린 시련을 국민적 단합으로 대처함으로써 역사를 이룩했습니다. 이제 시련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오늘의 상황이 너무도 복잡하고 힘겹지만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과 개방을 제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합시다.

아무쪼록 己卯年 한 해는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모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난관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세계화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회원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己卯年 새해 아침에